

조금(彫金)

조금이란 금속 표면을 타각해서 장식을 더하는 기법으로 조각, 타출, 나나코우치, 상감 등 다양한 특수 기법도 포함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법을 포괄하는 조금은 1955년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조금 기법은 야요이 시대(기원전 300년~기원후 300년)에 아시아 대륙에서 전래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구리나 금, 은, 청동으로 만든 제기나 장신구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금 기술과 금속가공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합금이 고안되었고, 이러한 강도가 높은 금속을 이용해 냄비 등의 생활용품이나 칼과 갑옷 같은 무기가 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합금을 장식하기 위한 조금 기술도 함께 발전했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7)에 들어서면서 일본은 100년 이상 지속된 전란의 시대를 지나 비교적 평화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무사들은 자신의 지위를 상징하는 무기와 갑옷 제작을 계속 의뢰했습니다. 에도 시대는 조금을 포함한 다양한 장식기법이 발전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1876년 메이지 신정부가 칼 휴대를 금지하면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전까지 많은 금속공예 장인들이 칼장식을 만드는 것을 생업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치는 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금속가공의 기계화가 진행되면서 손으로 제작하거나 조각한 금속공예품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이 시기부터 일본의 전통 공예품이 국제박람회에 출품되어 인기를 얻으면서 새로운 수출 수요가 생겨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금속공예 장인들이 무도와 관련된 물품 제작에서 순수한 예술품 제작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의 변화로 다시 조금 업계는 활기를 되찾아 갔습니다.

조금 중에서 특히 이시카와현과 관련이 깊은 기법이 바로 상감 기법입니다. 상감은 단단한 지금(地金)에 금이나 은 등의 부드러운 금속을 채워 넣어 장식을 만드는 기법입니다. 이시카와현에는 그 전신인 가가번에서 유래한 가가상감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가가상감의 특징 중 하나는 지금에 금속을 채워 넣는 방식입니다. 지금에 문양부분을 새길 때 표면보다 바닥부분을 더 넓게 파냅니다. 이렇게 만든 홈에 다른 금속을 두드려 넣으면 금속이 홈 내부에서 퍼지면서 지금 속에 단단히 들어갑니다. 이를 통해 금속이 고정되고, 지금과 높이가 같아져 표면이 매끄럽게 완성됩니다. 가가번에서는 이 접합방식을 특히 정밀하게 구사하여 풍부한 표현력을 구현했으며, 동시에 견고함도 겸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가상감은 관 형태의 금속을 끼워 넣는 '겹상감'이나 '이로가네'라는 구리합금을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합금을 물에 황산구리와 녹청을 섞은 액에 담그면 표면에 얇은 산화 피막이 생기면서 독특한 색조가 나타납니다.

이 외에도 조금에는 다가네(강철끝)를 사용해 가는 선을 새기는 게보리(모조),

췌기 모양을 새기는 게리보리(축조), 붓으로 그린 듯한 선을 새기는 가타키리보리(편절조) 등의 기법이 있습니다. 또, 육합조, 박육조, 고육조 등의 기법으로 문양을 입체적으로 새겨 넣습니다. 또한 문양부분을 도려내는 투조나 끝이 작은 원모양으로 된 강철끝을 사용해 작은 원형 문양을 만드는 나나코우치 같은 기법이 있습니다.

이시카와현립미술관에는 가가번이 자랑했던 화려하며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상감 기법으로 제작된 등자(안장 양옆에 매달아 발을 걸 수 있는 도구)를 비롯해 다양한 조금 기술이 활용된 작품들을 다수 소장하고 있습니다.